

라운아띠 8기 필리핀팀 12월 활동보고서 특집호!!!

# Sabay-Sabay Ta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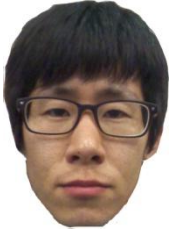
(Let's do it together!)



산 파블로 YMCA와 필리핀 팀이 함께 합니다.

## 1. Philmony with YMCA of San Pablo city

**Manny (하민수)** : 왁스남, 낮잠남, 밤잠남, 군것질남



특징 : 절대 순규 단원보다 일찍 안 일어난다. 가끔 일찍 일어나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

살핀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야금야금 군것질 잘함. 근데 살이 잘 안 찌는 건 함정.

팀 내에서의 위치 : 형, 오빠      잘 하는 것 : 기타치기, 농구, 먹을 것 비축해 놓기.

**Sean(안순규)** : 개털남, 개정색, 할아버지, 나무늘보



특징 : 11 월 팀 리더. 심심하면 짜러본다. 안 나던 털이 자라고 심지어 사랑니도 남.

여자 좋아한다고 팀원들이 놀려대지만 실속은 없는 건 대 함정. 귀차니즘의 선두주자로 천성이 원래 게으름. 하지만 일할 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함.

팀 내에서의 위치 : 한량      잘 하는 것 : 반두리아 연주, 잔소리하기, 코 만지기, 게임하기.

**Liz(이예은)** : 욱쟁이(순규단원에게), 엄마, 인기녀



특징 : 점점 넘어지는 횡수와 강도가 줄어들고 있음.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크다.

진짜 커도 너무 크다. 맨날 소리 질러대서 목이 남아나질 않음. 일하려는 열정이 항상 넘침.

현지인들이 아름답고 어리다고 하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앎. 어떡하지?

팀 내에서의 위치 : 강 항상 리더인 듯      잘 하는 것 : NINANG 되기, 문자하기, 뒹달하기.

**Jina(이금선)** : 큰 동네북, 까라바오(필리핀 소), 배불러, 대나무 인간, 줄리비, 어광골 짱



특징 : 바탕와이가 너무 좋아함. 계속 필리핀 남자 찾아달라고 말함. 따갈로그어를 굉장히

잘함(근데 다들 웃는다는 건 함정.) 갈수록 말라감. 항상 많이 먹는다고 주장함. 음식을 먹는

양에 비해서 좋아하는 건 엄청 많음.

팀 내에서의 위치 : 막내(나이만)      잘 하는 것 : 카톡하기, 콧소리 내기(안 그런다고 주장함).

## YMCA FAMILY(총장님과 Batang Y 삼총사)

**마미(크리스티 총장님):** 소파에서 자기, 심심하면 바탕와이 부르기, 커피 타달라고 하기, 한국인만 오면 참기름, 커피를 주문. 말이 많으심. 꽃 단장 하기.

**아이안(아들):** 컴퓨터 하기, 잡기에 능함.

**잭(딸):** 자신은 끝까지 부정하지만 누가 봐도 남자친구인 학교 훈남과 와이 현관에서 놀기. 맨날 놀기.

**제프리:** 알면 알수록 장난꾸러기. 다 잘함. 끈기가 엄청남. 라이언과 같이 아주 자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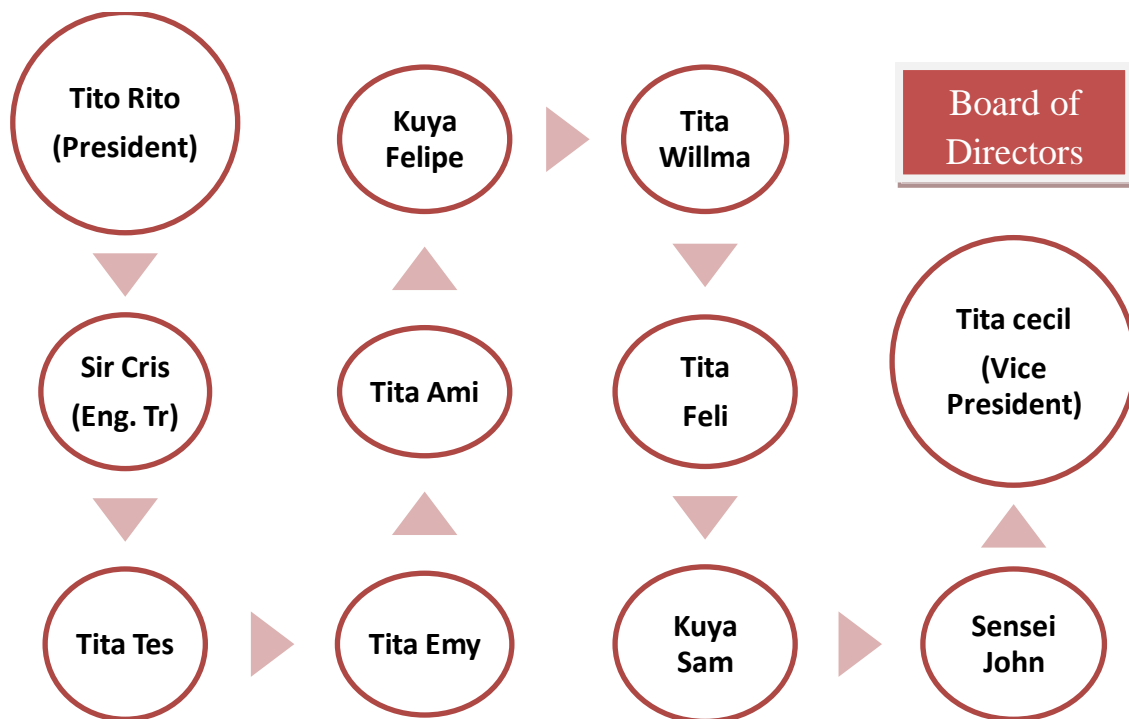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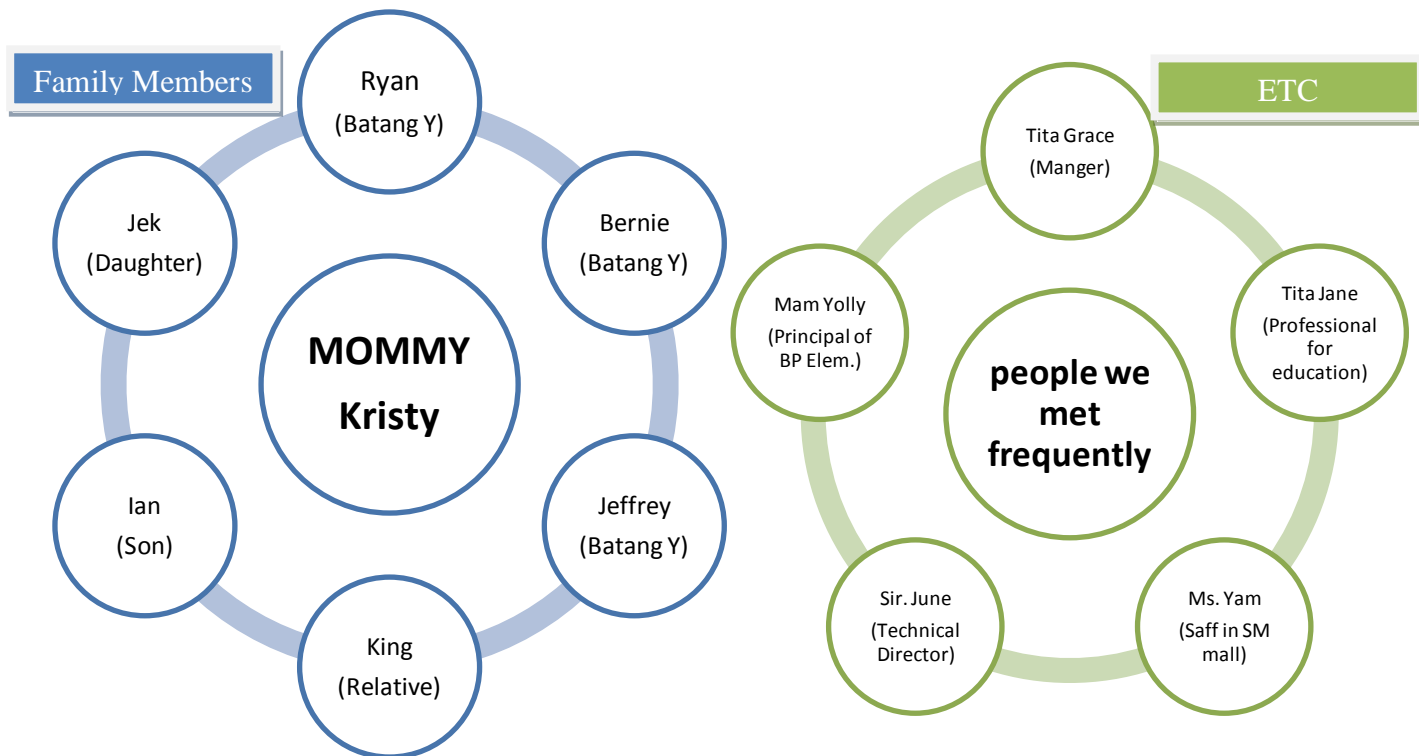
**버니:**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림.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표정이 풀어짐. 여자 타령하기, 맨날 하기. 그렇지만 가서 말은 못 검.

**라이언:** 귀여운 척 하기. 못생긴 얼굴 하기. 그런데 예전보다 확실히 못생겨지긴 함. 정색하기. 요즘 들어서 점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 필모니(Philmony) : 라온아띠 8기 필리핀팀의 팀명. Philippine 과 Harmony 의 합성어로, 필리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음

## 2. 인물 관계도



### 3. 12월 스케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Reading program & Feeding
2	3 <중간평가> 보고회 Baloc 방문	4 <중간평가> Dep Ed 방문 Feeding Pandin 호수	5 투표 Pangasinan	6 Pangasinan YMCA O.T Provincial building 방문 Dump site Pugaro 섬	7 나무 심기 Malasiqui Knowing thyself	8 나무 심기 Nanay 들과의 만남 Homestay
9 Friendship game Homestay	10 Day care center 수업 참관 Nanay 들과의 만남 Campfire	11 Day care center 수업 진행 문화의 밤	12 Day care center 수업 진행 & Christmas 행사 Sharing time	13 폭포 방문 Philippines YMCA 사무총장님과의 만남	14 SPC 로 복귀	15
16	17 EPC 후속활동 (세계 100 명 마을)	18	19 BPES 도서관 환경정리	20 Feeding BPES 도서관 환경정리	21 BPES Christmas party	22 Canossa school & YMCA Christmas party
23	24 <Batangas>	25 <Batangas>	26 <Batangas>	27 <Homestay>	28 <Homestay>	29 <Homestay> 아이들에게 선물전달
30	31					

## 4. 필리핀 팀의 주요활동

\* 특집호에 걸맞게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용량이 너무 커지는 관계로 많은 사진을 첨부할 수가 없었는데, QR 코드를 이용해 저희의 활동사진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스마트 폰을 꺼내세요!

### ♥ Feeding & Reading program

- 12 월에는 Pangasinan YMCA 방문, Homestay 등 외부 활동이 많아서 Feeding 과 Reading program 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Feeding 의 경우 3 번을 진행하였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침 Feeding 은 Vitameal 을 첨가한 참포라도, 점심 Feeding 은 밥과 계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12 월 20 일에는 방학 전 마지막 Feeding 으로서 스파게티 등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Reading program 의 경우 12 월 1 일 한 번만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평소 즐겨먹는 불량식품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하였고, 교육 이후에는 띠따제인이 준비해 온 면봉으로 아이들의 귀를 청소해 주었습니다.

### ♥ 중간평가

- 12 월 3,4 일 이틀에 걸쳐 중간 평가가 치뤄졌습니다. 한국 YMCA 이아나 간사님, 안산 YMCA 류홍번 총장님과 정명호 이사장님, 석수골 작은 도서관의 임은아 관장님께서 평가단으로 오셨습니다. 중간 평가는 크게 'Hub'도서관에서의 보고회와 실제적인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

- 지금까지의 활동을 점검하는 보고회로 중간 평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장소와 장비는 'Hub'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주어서 보고회 준비가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평가단을 비롯해 산파블로 YMCA 이사회, BPES 선생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중간 평가는 크게 브리핑, 질의 및 응답 그리고 악기연주와 티니클링 등 저희가 준비한 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방문

- 중간평가 첫째 날에는 저희의 주력 커뮤니티인 Baloc 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마침 Santonino 초등학교에서 Feeding 이 진행 중이어서 참관을 하였습니다. 이 후에는 쓰레기산에 찾아가서 Baloc 주민들이 일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Dep Ed 에 방문하였고, 이 후에 Bagong Pook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평가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나눠주고, 실제적으로 Feeding 을 하는 모습을 참관하였습니다.



♥ 홈스테이

- 12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3 일 동안 Baloc 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팀원 모두 흠어져서 한 가정씩 들어갔습니다. 호스트 패밀리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정에 들어간 만큼 팀원들 모두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산타 복장을 한 민수 단원을 필두로 동네를 돌며 아이들에게 저희가 준비해간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 ♥ Pangasinan



- 이전 기수가 Aurora 를 방문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 저희는 Pangasinan 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San Pablo 가 아닌 다른 YMCA 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배우고, 홈스테이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Pangasinan 에는 총 10 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 ▶ O.T 및 현장 방문

- Pangasinan YMCA 를 홍보하는 영상을 보는 것으로 O.T 를 대신했습니다. 대신에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체험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Provincial building 에 방문했습니다. Pangasinan 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후에는 Dump site, Pugaro 섬 방문, 나무 심기 등을 통해서 Pangasinan YMCA 에서 하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Canan sur

- Pangasinan 에 있는 10 일 중 6 일을 Canan sur 라는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이장님 댁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 동안 각각 YMCA 의 자원 봉사자 혹은 직원과 짝을 이루어 홈스테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내에 있는 'Day Care Center'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교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내의 어머니 조직과도 만나고, 조직의 리더를 뽑는 자리에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Campfire, Knowing thyself 등을 통해서 팀원들끼리 그리고 Pangasinan YMCA 의 관계자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고, 마지막 날 밤에는 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의 밤을 했습니다. 강남스타일, 티니클링, 아리랑 등의 공연과 함께 Pangasinan YMCA 를 홍보하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 ♥ End Poverty 캠페인 후속활동



- 12 월 17 일 Canossa school 에서 40 여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End poverty campaign' 후속활동의 일환인 '세계가 100 명의 마을이라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YMCA 이사회 부회장님이신데, 저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기대했던 것 보다 낮았습니다. 이 후의 후속 활동은 아직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 BPES library Decoration

- 다른 일정들에 밀려서 하지 못했던 Bagong Pook 초등학교의 도서관을 꾸미는 작업을 했습니다.

목요일 Feeding 이 후의 Activity 시간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용해서 벽을 장식하였고, 다른 벽면에는 단어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이

후에는 학교 입구에 페인트를 칠하고 학교 이름을 새겨 넣을 예정입니다.





### ♥ Voting

- 12 월 5 일에 마닐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였습니다. 나라의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에 3 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달려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 투표 와 함께 인증샷도 찍어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 ♥ Christmas Festival

-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일년 중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Bagong pook 초등학교, Canossa school 등 많은 곳에서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 ▶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 12 월 20 일에 바공포옥에서 방학식 겸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교측에서 준비한 쌀과 옷 등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도 관람하였습니다. 저희는 캐롤과 강남스타일 춤을 추었습니다. 특별히 민수 단원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중간 평가단이 주고 간 연필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 ▶ Canossa school

- 카노사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습니다. 참석한 아이들 중 20 여 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였고, 와이에서 준비해 간 음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 Batangas

- 크리스마스 기간에 사무총장님의 고향인 Batangas 에 방문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약간의 휴가와도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저희끼리 쇼핑도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 5. 이번 달의 회의록 (2013년 1월 2일자)

**민수:** 2012 년의 마지막 며칠을 발록의 산 이그나시오(San Ignacio)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보냈는데, 어땠어?

**순규:** 몸이 아파서 자주 누워서 지냈는데, 좀 아쉽네요. 호스트 패밀리에게 민폐만 끼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모두 다른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가만 들어보면 같은 곳에서 살아도 조금씩 사는 모습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가장이 있어서 풍성하진 않지만 굶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은아, 너희 집은 어땠니?

**예은:** 우리 집은 와이에서 가져간 쌀과 반찬이 없었으면, 끼니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서 가져간 반찬을 알차게(?) 썼는데, 그게 제 가족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민수:** 그래, 말 그대로 가난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것도 참 어려웠어. 밥을 하든 목욕을 하든, 물이 필요할 때마다 양손에 양동이 하나씩 들고 제법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목욕도 강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은:** 맞아요. 저도 강에서 머리 감았는데, 한 쪽에서는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빨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위생 문제가 좀 걱정 되더라고요. 피부가 깨끗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욕을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건 둘째 치고요... 떠온 물에서도 약간 쇠 냄새 같은 게 나고, 물을 떠오는 플라스틱 통도 깨끗하지는 않아 2차 감염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로 집에 있는 식구들은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목욕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는데 물을 떠오는 거 자체가 일이니까 그릇을 세 번 헹굴 것도 두 번만 헹구게 되고. 그런데 겪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보고 ‘위생관념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양치는 하루에 세 번’, ‘쓰레기 소각은 환경을 오염시키니 하면 안 된다.’ ‘가족계획을 해서 아이는 기를 수 있을 정도로만 낳아야 한다.’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왜?’ ‘어떻게?’라는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규:** 그래, 맞아. 정말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이래라 저래라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발록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루에 양치를 세 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를까? 잘 알 거야. 그런데도 양치를 할 때마다 물을 길어야 하거나 강에 가야 해야 하니, 이 사람들의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양치도 안 하는 게으른 또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 또 치약을 사는 것이 어려운 그 사람들의 형편도 모를 거야.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요즘은 6시가 되기도 전에 해가 지잖아. 랜턴을 들고 강에 가서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해야 하는데, 어느 누가 이게 그렇게나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어.....



**금선:** 우리 모두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수도꼭지가 있고 거기서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아직도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도꼭지가 없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밑반찬이 없어서 바고웅(우리나라의 멸치액젓)에 밥을 비벼서 먹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인데도 나를 위해서는

매 끼니마다 주스를 사주고, 고구마도 튀겨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저희 집은 얼음과 아이스바를 얼려서 파는데 가족들과 아이스바도 함께 만들고, 반찬도 함께 구해보면서 가난하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금선이 집과는 다르게 우리 집에는 가장이 계신데, 따따이(아빠)가 나한테는 물도 못 길어오게 하더라고. 날이 무더워서 목욕은 하고 싶은데 내가 목욕을 하면 다른 사람이 물을 길어와야 되니까 미안해서 목욕도 못하곤했더라. 또, 나는 우리 집 가족들과 함께 발록 산또니뇨 초등학교에서 하는 배식에 참여했어. 집에서 걸어서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너희들도 알지? 가족들이 내게도 음식을 받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꺼이 갔지. 그런데 일단 줄을 서니까 말로는 설명 못할 부끄러움이 밀려오더라. 나는 실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저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줄을 선 것일 뿐인데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딩을 받는 바공포옥 초등학교 학생들이 떠오르더라. 우리에게 피딩을 받는 아이들의 기분이 어떨지 느낄 수 있었어.

**순규:** 가장이 없으면 한 가정이 회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나 민수 형이 있었던 집처럼 가장이 있는 집은 그래도 그나마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정말로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관찰할 수 있었던 다섯 가정 중에 가장이 있는 두 집은 최소한 배는 굶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세 가정(예은, 금선, 안토니의 가족)은 평상시에 얼마나 어려운지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간식은커녕 먹을 반찬도 없잖아요. 그나마 아들이나 남편이 있는 집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돈은 버는 것 같아요. 물론 엄마들도 야채를 팔거나 네일아트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예은:** 발록에 있는 우리 또래의 친구들이 다 말랐잖아요. 키도 큰 편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알겠어요. 간단하게 말해 먹는 것은 너무 적는데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키가 작고 마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규오빠 가족 중에 둘째 아들인 마크가 저한테 “누나네 집에는 먹을 게 많은 가봐요,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아이의 상황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홈스테이를 도와준 안토니 있죠?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반찬은 없는데 배가 너무 고프면 밥에 설탕, 소금이나 커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었어요. 21 살의 성인 남자가 되어서도 그렇게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 게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다고 하니 정말..... 그렇게 먹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큰 길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나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길은 그렇게나 머니까요. 걸어서 30 분은 기본이고 보통 한 시간은 넘잖아요. 한 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되요.



**순규:** 그래 맞아. 예은아, 너는 가리는 음식도 있고 먹기 싫을 때는 음식도 남기잖아. 어떤 거 같아?

**예은:** 그 전에는 내게 왜 먹는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적어도 음식 남겨서 버리는 것은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못 먹을 거 같은 음식은 이제 그릇에 덜어 놓지도 않으려고요.

**금선:** 오! 좋은데요? 지켜볼게요! 발록의 친구들은 저보다 다 어린데도 겪고 있는 삶의 무게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시간여를 걸어서 일을 하러 나가거나 땀감이나 반찬으로 먹을 야채를 찾고, 물을 쓸 때마다 길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그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고, 언제 나올지 기약이 있었잖아요. 단 삼일. 그런데 그 곳에 있는 분들은 기약이 없죠. 어쩌면 발록의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그 곳에 살수도 있는 것이고, 그 친구들의 자식들도 계속 살는지도 모르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밀려들어온 삶, 그게 대부분 가정의 사연인 것 같아요.

**민수:** 그래 맞아, 그나마 우리는 손님 대접을 받아서 잠도 그나마 제일 좋은 곳에서 자고 물도 길어오지 않고, 음식도 그나마 제일 좋은 것을 먹어서 3 일을 살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 진짜 그 곳에서 1년 이상 산다면, 아마 더 큰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야.

**순규:** 아마 1년을 산다고 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전 여기에 와서 이곳 사람들의 입으로 듣기 전에는, 정말 그럴까 싶었던 게 있어요. 교통비(8 페소, 160 원)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간다고 하는 거요. 그런데 정말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나 알스센터에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통비라도 어떻게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건지

너무 어렵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왔을 60,70 년대가 오버랩도 되고요...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을 것 같아요. 이곳 사람들처럼.

**예은:** 와, 발록에서의 홈스테이가 라온아띠에게 정말 좋은 배움을 준 것 같네요. 저는 이런 것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그 날 그 날의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웃음기 하나 없는 딱딱한 삶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농담도 많이 던지고 웃음이 많더라고요. 전 홈스테이 하는 동안 정말 많이 웃고 재미있었어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집이지만, 저희 홈스테이 가정의 어머니는 '이 집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정말 부족한데 말이에요...

**금선:** 맞아요, 저희 가족도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어느 가정이든 불화는 있기 마련인데, 가족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보여요. 집안에는 잘 공간이 부족해서 이안이나 클라우드디오가 흙 바닥에 놓은 나무 소파에서 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짠하기도 하지만 열일곱밖에 안 된 소년이 그런 상황을 별다른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에요.

**순규:** 나는 우리 집의 아떼 무닌(엄마)과 둘째 아들 마크를 보고 희망을 봤어. 엄마가 정말 악착같이 살림을 꾸려서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 그리고 요리도 잘 하시고. 덕분에 나는 참 잘 먹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둘째 아들이 참 영리하고 공립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어에 유창해. 난 그 아이가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해. 집 안에 트로피도 많더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나는 정말 금전적으로 후원해줄 의사도 있어. 그 아이를 하나 구하면, 가족을 구하는 길이니깐.

**금선:** 오빠,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예전에 저는 금전적으로 돕는 걸 보고 너무 생색내기 식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금전적으로 돕는 것도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거 같아요. 잘 해봐요 오빠!

**예은:** 맞아요, 오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돕는 데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잘 봐두었다가 그 골든타임이 오면 꼭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이 부쩍이나 많이 들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머뭇거리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언제 그 적기가 올지 모르니까요.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판단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 와, 오늘 이렇게나 할 말들이 많았어? 좋다, 좋아! 이런 생각들 끝까지 않고 가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자! 다들 애썼어. ^^

## 6. 칭찬타임

♣ 라온아띠 필리핀 팀은 매주 토요일 정기 회의 시간에 칭찬타임을 갖습니다. 한 명의 팀원을 지목해 일주일 동안 칭찬거리를 찾은 후 다른 팀원들이 그 팀원을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라온아띠 일정 동안 한번쯤 쉬어가자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 줌으로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 ◆ **민수** : 확실히 다른 팀원들에 비해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아는 것 같다. 유아교육이 복수전공이라고 항상 말했는데, 아이들과의 활동에서 전문성이 느껴진다. 또한 초기의 걱정의(?)시기와 비교하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활동의 적극성에 있어서나 확실히 많이 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잘 놀아준다. 아이들이 항상 Manny! 라고 외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듯.

## 7. 이 달의 타갈로그어 문장

- **Manny(민수)** : Bigay ko ito sa yo. (이거 당신을 위한 거예요.)
- **Sean(순규)** : Pare and mare, Pakingan mo! (친구들아, 집중해봐!)
- **Liz(예은)** : Alam kong ako ay maganda. (저도 제가 예쁜 것을 알아요.)  
-> Sinungaling ka?(뺨치지마) by 순규
- **Jina(금선)** : Salamat sa pagtulong mo sa akin.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8. 이 달의 사진



### <San Ignacio 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선물 증정 시간!>

\* **선정 이유** : 12 월은 산 파블로 YMCA 에서 머문 시간보다 Pangasinan 과 Baloc 의 San Ignacio 에서 보낸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San Ignacio 로 홈스테이를 하러 갈 때는 그 곳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을 준비해갔었고, 이 사진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때의 사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민수 단원은 산타 복장을, 그리고 예은 단원은 한복을 챙겨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매우 더웠는데도 마을을 빠진 곳 없이 한 바퀴 쭉 돌면서 준비한 선물을 모두 나누어 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주목할 점** : 해가 찡찡한 더운 여름 날씨였는데도, 귀엽게(?) 산타 모자를 쓴 단원들의 모습. 특히 산타치고는 너무 마른 민수 산타클로스!

## 9. 이 달의 인물 : Pangasinan YMCA Staffs / 라온아띠 8기 필리핀 팀 멤버들

### Interview 1.

모든 라온아띠 필리핀 팀은 Community exposure의 일환으로 활동 기간 내에 산파블로 이외의 다른 지역을 방문한다. 8기부터는 기존 Aurora라는 곳을 떠나 Pangasinan이라는 곳이 새로운 사이트를 선정되었다. 10여 일 동안 그곳 와이 식구들 (Pangasinan YMCA)과 같이 생활을 했다. 열명이 넘는 스태프 대부분이 우리와 같은 또래여서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았다. 이 친구들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뽀뽀한 스케줄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 인터뷰 대상자는 우리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인 Mark, Emerson, Marvin, Reynald, Jeremy, 그리고 Richard 꾸야였다.

*(약간의 각색이 가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왜곡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처음 YMCA와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 단체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Y에 오기전의 삶이 어땠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Mark(현재 자원봉사자, Pangasinan Y장학금 수혜자) : 처음에는 YMCA가 어떤 단체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단체나 학교에 있는 단체이겠구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2011년 워크캠프를 통해서 Y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Marvin을 통해 일본 사이타마 와이와 함께하는 워크캠프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Y에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Y는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만두었던 공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대학에 갈 수 없었고 그 기간 동안 나쁜 습관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흡연도 배우고 음주도 시작 했고요. 그냥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Y의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고,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삶의 목표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행복했고,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보니 전 부자네요. 사람부자!

Emerson(Pangasinan Y 정규스태프) : 전 그냥 마빈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Y에 대해 모르다가 마빈의 소개로 워크캠프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바로 하루 전에! 그게 2011년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Y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전공은 간호학입니다. 간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졸업 후 병원에 취직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고 일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워크캠프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Y의 자원봉사자로 직접 일했습니다. Y가 너무 좋아서 결국 정규 스태프까지 되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Marvin(Pangasinan Y의 정규스태프, 스태프들의 리더격) : 저는 하이스쿨 와이에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별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진 않았었죠. 예를 들어 2005년에 High Y Youth Congress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더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방문목적은 미남,미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등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실 Y활동 초기에는 다른 짓을 하기 위해 Y활동을 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고등학교 졸업 후 Y에 장학금을 신청했고, 워크캠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영 보조교사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값진 기회이자 경험이었습니다. Y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제 전공에 대한 회의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면 영어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왠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재미 없어 보였죠.



그러던 중 졸업 후 와이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홍콩에서 열렸던 워크캠프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봉사자의 경험을 거쳐 정규 스태프가 될 수 있었습니다.

Reynald(Y자원봉사자 및 장학금 수혜자) : 저도 Marvin이랑 친한 친구입니다. 특별히 Y와 인연은 없었는데, 몇 년 전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을 때(\*Y장학금 수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 친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계기로 Y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파는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었죠. 주유소에서 일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을 바꾸어 준 것이 Y이죠. 올해부터 호텔 매니지먼트를 전공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Y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새롭게 공부할 기회가 주워져서 너무 좋습니다!

Jeremy(Y자원봉사자, 장학금 신청 예정) : Y의 오기 전까지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진짜 이 일 저일 다해 보았습니다. 바기오에서 길거리 과일상인을 해보기도 했고, 양계장, 돼지우리, 쌀 나르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죠. 그러다가 친척 중 한 명이 와이 워크캠프에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Y의 인연에 시작이죠. 워크캠프에서 Y식구들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웠죠. 그 후에도 한번 더 워크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어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캠프를 다녀왔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삶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탕하게 생활했고, 일이 있으면 시작했습니다. 건축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에는 이 일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간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Y에서 더 배우고 싶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Y자원봉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계속 노력했고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Richard (Y정규 스태프, Y장학생이었다가 일하고 있음) : 제가 사는 마을에 Y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Y를 알게 되었고 장학프로그램에도 지원하게 되었죠. (Pangasinan Y는 마을조직 활동을 Cannon Sur라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Richard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음.)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었는데 참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재정적으로 충분하기 않아서 공부하기가 힘들



었죠.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Y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재정적 지원으로 인하여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졸업할 수 있었고, Y 전 보드멤버의 도움으로 그 분이 소유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일했는데 전 결국 Y로 돌아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여기서 일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가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참고로 2005년 결혼). 만약 제가 그 자동차 공장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다면 관리자로 꽤 높은 위치에 있었을 테고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돌아온 건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이가 제 삶을 살려놓기도, 망쳐놓기도 했네요? ^^

## 2. 앞으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표나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Mark : 일단은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곧 대학교 공부를 시작하는데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당장 미래에 무엇을 해야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일단 10년 정도 일을 먼저하고, 돈 있으면 결혼 하겠죠? 전공이 범죄학 관련 분야인데 졸업 후에 crime & lost 분야에서 일하고 싶고 선생님으로도 일하고 싶어요.



Emerson : 일단 3년 정도는 와이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이후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1년에 3천페소 정도를 Y 장학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싶어요. 또 더 많은 장학생들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싶기도 하고요. 결혼은 아마 28살 정도에 하지 않을까요?

Marvin : 일단 와이와 관련된 미래 계획이자 바람은, 안정기에 접어든 프로그램들이 확장 할 수 있었으면 해요. 예를 들어 2년 내에 와이에서 일하는 스태프가 5명이 되고, 그 다음 2년에는 10명이 되는, 규모를 늘리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와이 스태프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Y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 이곳을 떠나는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 하고 싶어요. 물론 단순히 보수의 측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파트타임 선생님이로 일하고 싶어요. Y의 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제 전공도 살려보고 싶어요.

Reynald : 저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요. 솔직히 다시 가난해 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Y에서 일하고 싶지만,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공을 살려서 호텔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일단 마음속에서는 Y와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요. 저에게 도움을 준 곳이기도 하고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Jeremy : 저는 더 많이 일하고 싶어요. 당장 결혼 생각 같은 것은 없어요. 저희 가족을 먼저 부양하고 싶습니다. Y에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전에 일단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싶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기도 하네요! 돈을 벌면 밭이랑 집을 사고 싶어요. 가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함께 놀고 싶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제가 직접 찾아 갈수도 있겠네요. 하고 싶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외국에도 가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내년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계획이에요.



Richard :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복잡한 건 싫습니다. Y에서 계속 일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서도 일하고 싶네요. 형제가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Y의 일도 일이지만 일단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네요. 행복한 삶을 주고 싶고, 아이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싶어요. 당장은 이곳에서 삶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생각하기 싫고 그냥 집중하고 싶어요. 'Y가



곤 제 삶이기 때문이죠.' 항상 나를 도와준 와이에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나 가족에게나 모두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인터뷰 인원이 너무 많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2개밖에 하지 못했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일단 인터뷰 분위기가 너무 산만했다 π.π. 같은 또래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10일간의 짧은 머무름이었지만 Pangasinan Y 사람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해 보고 싶다. 인터뷰에 응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Interview 2.

벌써 마지막 달이다. 산 파블로를 떠나기 전,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서로 인터뷰를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민수와 예은 그리고 순규와 금선이가 서로에게 질문을 했다.

### <Manny, 하민수>

#### 1. 처음에 라온아띠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뜻한 바를 좀 이루었는지 궁금해요.



- 지원동기는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라온아띠를 일종의 리허설처럼 생각하고 지원했어요. 뜻한 바를 이뤘냐는 질문에 반은 이뤘고 반은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라온아띠를 하면서 이 일의 어려운 부분,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하겠냐, 내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반절은 이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활동 기간이 짧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9 월, 12 월에는 봉사활동보다는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뜻한 바는 한 반절 정도 이뤘다고 말하고 싶어요.

## 2. 라온아띠로 필리핀에 오기 전과 필리핀에 와서 바뀐 생각이 있나요?

-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바뀌었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둘 다 무엇인가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동등한, 같은, 수평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 3. 라온아띠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요?

- 사람을 보는 안목을 얻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쉽게 내렸는데 지금은 여러 상황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팀 활동과 여러 사람을 만나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전의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경계심이 많았어요. 먼저 말을 건다거나 하지 않던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재미가 붙은 것 같네요. 잃은 것으로는 자신감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국제'개발협력은 국내에서 하는 활동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고, 넘어야 할 산도 더 많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몸무게도 좀 잃었네요.

#### 4. 라온아띠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좁고 고정된 시각을 넓혀줬어요. 팀원들과 토의도 하고,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내 시각을 넓혀준 것 같네요. 또, 라온아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더 알게 되었고요. 아, 제한계점도 느끼게 되어, 자기 계발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어요.



#### 4. 라온아띠를 추천하고 싶나요, 추천하고 싶지 않나요?

- 이쪽 '일'을 배우거나 경험하기 위함이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쌓는 법이니까, 이런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추천하고 싶네요. 일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긴 프로그램으로요.

#### 5. 라온아띠 활동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잘한 점과 좀 부족했던 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먼저 저 자신을 평가할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마음을 열게 되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봤을 때 그런 점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부족했던 점으로는 활동성을 끈고 싶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5 개월 동안 다 쥐어짜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나중에는 할 일이 떠올라도 귀찮아서

미루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팀원들이 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뒤로 물러 선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 팀으로서 잘한 점은 너무 방방 뜨지도 않고, 너무 다운되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저는 팀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정성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활기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팀의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반면에 우리 팀은 학구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심각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심각해진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 6. 팀원들의 장점을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 먼저 순규 단원은 참을성이 좋아요. 그리고 리더를 할 때, 팀원들의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금선 단원은 친화력이 참 좋아요. 뭐든지 불만 없이 잘 수용하는 모습도 좋고, 여유로워요. 예은 단원은 추진력이 좋아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씨도 좋은 것 같고요.

## <Sean, 안순규>

### 1. 라온아띠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제가 가지고 있었던 대학생들의 목표 중 하나가 해외로 장기간 해외봉사활동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은 자비를 들어서 가는 프로그램이라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었고, 주관하는 단체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서 망설였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도전의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웬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지식도 많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난 봉사활동 몇 번 한 게 전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전해서 잘 할 수 있을 지, 그런 생각 때문에 지원 자체를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해외 단기봉사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제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라온아띠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올게요, 빈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올게요' 라며 큰 포부를 가진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잘 살고 잘 배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동기를 가지고 지원했다기 보다는 소소한 이유를 가지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지 기대하며 지원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 2. 라온아띠로 활동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라온아띠를 하면서 얻은 것이라..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온아띠로 활동하기 전 까지,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얻었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개념은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돈이 넉넉지 않은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애로사항도 많고, 그만큼 그 안에서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드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피딩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들이 적정 수준의 영양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식사 예절(흘리지 않기, 편식하지 않기, 남기지 않기) 등도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이렇듯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여기에 온 이후로 주위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구걸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국에도 있는데, 전 이 때까지 발견도 못하고 신경도 안 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한국과 필리핀이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국내 문제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밥을 한 끼 제공해주는 것이나 한국에서 밥 한 끼 주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잃은 건... 핸드폰? 사실 아직 잃은 것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일하게 된다면 뭔가 생기겠지만, 아직은 부모님을 자주 못 뵈는 것을 빼면 딱히 잃은 것은 없습니다.

### 3. 여기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 가서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가요?



: 일단은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당장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수입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가 아껴 살면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 잠시 머물면서 느낀 것이, 자금의 중요성이었어요. 자금이 부족하니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규모의 세계나 국가 단체 (코이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아쉽게 생각했었던 돈의 문제나 프로젝트 크기, 체계성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후원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코피온에 매달 1만원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직장을 얻게 되면 매달 10만원 정도씩은 후원을 하고 싶어요. 한 단체에든, 아니면 여러 단체에 나눠서든. 그리고 당장은 하지 못하겠지만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싶기도 하고, 각 단체에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그 투명성을 확인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단체를 만들면 사람들이 단체를 더 신뢰하고 많이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4. 주변 사람들에게 라온아띠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추천하고 싶지 않으세요?**

: 제 친구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보는 국제개발협력은 너무 미화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 쪽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무언가를 배우기 보다는 짜증이 앞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과 관련해서도, 그냥 일반 기업에 취업할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명감으로 뭉치거나 진짜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만, 그게 아닌 대학생들에게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만큼 추천하기가 조심스러워지네요.



#### **5.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도 라온아띠로 활동할 마음이 있나요?**

: 당연히 오고 싶어요. 어딜 가도 라온아띠로 활동했던 것은 특이한 이력, 특이한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와서 그냥 살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어요. 물론 가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건 가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짜증이 나는 것뿐이지, 내가 여기 온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건 아니에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꼭 다시 이 활동을 할겁니다. 조금 더 어렸을 때, 라온아띠로 활동을 했다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대학생으로서 다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 <니르, 이예은>

### 1. 한국에서의 삶과 필리핀에서의 삶을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나요?

: 한국에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학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학기 중에는 타이트하게 생활을 해서 방학을 하면 기진맥진 할 때도 있었어요. 게다가 스트레스 관리법도 없어서 삶이 팍팍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일 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살았었죠.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여유가 생기고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춰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어서 좋고요^^



### 2. 팀 생활을 하면서 다른 팀원 개개인에게 배운 부분이 있나요?

: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민수 오빠는 쉽게 쉽게 말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맛 없는 음식도 군말 없이 잘 먹고요. 참을성이 좋은 것 같아요. 금선이는 센스가 좋아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센스가 있어야 한다기 보다는, 사람들을 대하는 기술을 금선이를 통해 배웁니다. 또 금선이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도 있는 것 같아요. 순규 오빠는 잘 참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주고 살자는 좌우명도 좋고요.



### 3. 팀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 팀 생활을 하면서 일을 잘 하는 것과 사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내 의사를 전달하는 대인 관계의 기술도 배웠어요. 그리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어요.

### 4. 지금까지 활동에 있어서 점수를 매긴다면요?

: 음.. 10 점 만점에 7 점??



### 5. 이유는요?

: 한국에서 만나던 사람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 이었어요. 굳이 다른 점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나지는 않았죠. 반면에 여기서도 만나는 사람들은 저와 접점이 없는 사람들 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람만 보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점점 템포가 느려지는 느낌이었는데, 라온아띠가 추구하는 방향 측면에서는 잘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만 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반면에 잘못된 점은 라온아띠니까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사람을 대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지치게 됐던 것 같아요. 활동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일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쪽으로는 배우지 못해서 아쉬워요. 업무를 계획하고, 현지 실무자들과 회의를 하고, 현장에 답사를 가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아쉬워요. 아마도 인턴이 아닌 봉사활동으로 온 것이기에 실무적으로는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요.

## 6. 라온아띠가 인생 전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라온아띠는 '뉴'인 것 같아요. 계속 빠져들어요. 국제 개발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을 하더라도, 라온아띠에서 배운 가치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도 외면하기도 하면서 애써 위로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을 할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 갈 것인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 7. 라온아띠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요?

: 사람들을 얻었어요. 팀원들을 비롯해서, YMCA 가족들, Baloc 의 친구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더불어서 많이 웃게 됐고,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만약 라온아띠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이 넘어지고 모기도 많이 물려서 흉터도 많이 생겼고요.^^;

## 8. 잃은 것도 있나요?

: 음.. 소량의 몸무게??ㅋㅋ 그리고 미리 걱정하는 습관을 잃었어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얻은 거네요^^



## <Jina, 이글선>

### 1. 제가 알기론 이번까지 벌써 3번째 지원인데 왜 떨어지는데도 계속 지원했나요? 라온아띠를 그렇게 사랑했나요?

: 사실 다른 단체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떨어졌죠. 기간과 형태를 떠나서 '봉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계속 도전했어요. 현대에서 하는 해피무브에 지원했던 것이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건 한비야 책을 읽고 감명받은 이유도 있어요. 미디어나 책에서 보여지는 '국제협력'이라고 일컬어 지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래서 계속 지원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원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한 두 곳도 아닌데 말이죠. 나중에는 오기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 나중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 그대로 보여줬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 내가 이런 일에 적합하지 않나? 난 정말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걸까?'

떨어짐의 연속에서 쉽게 포기하기도 아까웠고 오기로 도전한 것도 있습니다. 말로는 국제협력에 관련해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라온아띠에 계속 지원한 것도 해외에서 경험을 통해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어요. 제가 가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능력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계속!!!! 넣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어떻게 되었네요. 라온아띠로서의 경험은 평생 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2. 필리핀을 지원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영어 때문은 아니었고, 홈페이지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했어요. 예를 들어 피딩이나 알스 같은 프로그램들은 제가 해보고 싶었던 분야였어요.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매력적인 곳이었죠.

커뮤니티 관련활동도 하고 싶어서 지원한 이유도 있고요. 사실

이곳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홈페이지에 나온 몇 줄의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 건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사실 유일한 정보니까 믿어야겠죠?

## 3. 처음 이곳에서 와서 느낌이 어땠어요? 기존에 삶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고 불편한 점도 많았을 텐데,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

: 사실 한국에서 절대로! 찬물로 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찌할 수가 없네요. 방은 처음 보았을 때 상상했던 것 보단 좋았어요. 가끔 힘들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적응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못살겠다 라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 겪는 것들이라 당황스러운 정도? 아, 생각해보니 위생상태는 약간 그렇네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보면, 솔직히 제 삶의 기준에서 더럽게 보일 경우가 많거든요. 전 옆에서 요리를 많이 도와주는데 몰래 식기들 정리하고 닦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7기의 가르침을 들어서 그런지 별레는 대충 적응했는데 주는 아직도 적응이 안돼요... 마주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완벽하게 적응하고 살겠어요. 빨래하



는 것, 음식 하는 것, 자는 것, 한국에서 살던 것과 비교하면 모두 불편하죠. 그렇지만 거의 적응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 **4. 활동하면서 행복하거나 즐거웠던 적 있나요?**

: 모든 활동이 다 즐거운 것 같아요. 딱 꼬집어서 말하기 힘들 정도예요. 길거리 지날 때 마다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이야기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바공포옥에서 모든 활동은 마냥 즐거운 것 같아요. 아이들과 있으면 쓸데 없는 걱정도 없어지는 것 같고 행복해요. Y와서 같이 놀고 저에게 선물 줄 때도 좋고요. 내가 해준 것에 비해 아이들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 **5. 라온아띠 활동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진로가 더욱더 확실해 진 것 같나요?**

: 솔직히 말해서 고민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는데, 라온아띠로 활동하면서 과연 내가 이 분야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니셔티브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고민이 많아요. 저에게 벅찬 일 같기도 하고 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일하면서 즐겁고 재미있으니 쉽게 포기하기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아마 한국에 돌아가서 당장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 일도 해보고, 경험을 쌓고, 헤안을 가진 후에 도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을 돕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으니 당장 국제협력분야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기부 같은 걸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거예요.



## 6. 라온아띠를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겠어요?

: 저는 적극 추천해요! 진로를 이쪽으로 잡지 않은 사람이라도, 배움과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 변화가 생기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선배 기수들 중에 굉장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활동간에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인내하면서 생활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 10. 한국 & 필리핀 문화비교 (주제: 필리핀에서 보내는 연말 - 크리스마스와 송년의 밤)

이 곳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굉장히 큰 행사로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기를 위해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기수의 경우 운 좋게도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바탕가스 시내 풍경>



<크리스마스 당일, 아이들과 함께 한 게임>

먼저 크리스마스의 경우, 이 곳은 아무래도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인지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큰 행사로 여겨진다. 보통 커플을 위한 날로 치부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단 필리핀

사람들은 9월 말~ 10월 초 경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 때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아 춥다' 라고 말을 하면, '아 이런 날씨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걸 의미해' 라는 대답이 돌아올 정도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두는 비중은 상당하다. 11월쯤에는 쇼핑몰이나 길거리에서 쉽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수 있고, 물론 캐롤도 그 때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12월에는 모든 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넘쳐흐른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우리도 총장님의 고향인 바탕가스에 가서 12월 24~26일, 총 3일을 보내고 왔는데,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게임도 하고, 계속 음식을 먹는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고 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크리스마스 인사도,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까지 더해지곤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설날에 세뱃돈을 받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돈이나 사탕을 주곤 한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아이들이 와서 캐롤링을 하거나, 혹은 그냥 방문해서 'Pasko po' (pasko는 크리스마스를 의미) 라고 말을 하면 어른들은 준비해 놓은 동전을 주거나 스낵을 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곤 한다.



<폭죽 터트린 후의 잔해>



<2013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의 상차림>

그리고 2012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또한 굉장히 큰 행사이다. New Year's Eve라고 불리는 이 날은 마치 축제 같은데 마트에 가도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다. 7시쯤 저녁을 먹고, 계속 요리를 하고 술을 마시며 가족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새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자정을 넘어 새해가 되면 해피뉴이어를 외친 후 다시 거나하게 식사를 시작한다. 이곳에서 새해에 생기는 큰 문제 중 하나는 폭죽으로 인한 부상이다. 우리는 그 때 총장님 시택에 가서 있었는데, 사방에서 시끄러운 폭죽 소리(하늘을 수놓는 예쁜 폭죽도 있지만 그건 극히 소수이고, 땅에서 터트리는 폭죽이 대다수였음)로 인해 다소 정신 없었던 게 사실이다.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고, 가끔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장난 삼아' 행인들에게 그 폭죽을 터뜨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폭죽으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고 있었다.

이처럼 이 곳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 와 새해 전 날은 매우 특별하며 시끌시끌하다. 크리스마스든 새해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날이고, 덕분에 우리도 다양한 곳에서 색다른 크리스마스 와 New Year's Eve 를 보낼 수 있었다.



## II. Meatless Monday & 나비효과, 나의 효과

### 1. Meatless Monday

● **Manny(민수)** : 이번 달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행사들이 겹쳐서 'Meatless Monday'를 실천하지 못 했다. 우리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철저히 실천하는 게 맞겠지만, 현지인들과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기쁨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우리의 캠페인 보다는 함께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 **Sean(순규)** : 12 월은 아주 칼같이 못 지켰습니다... 망했어요... 연말이라 쉬는 날도 많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필리핀에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겠지만, 고기 없이 파티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대자면 12 월에 Y 에 머물렀던 시간이 별로 안 되어서 외부에서 밥을 먹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Meatless Monday 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날을 충분히 홍보할 수는 있었지만 같이 하자고 할 수가 없더군요. 즐거운 연말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무심코 지나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파티에 초대될 때마다 아주 열심히 고기를 먹었습니다. 12 월 달은 한번 정도 실천한 것 같네요.

산 파블로 시티 시장주변에 맥도날드가 들어섰습니다. 괜히 Meatless Monday 가 생각이 나더군요. 이상한 이야기 이지만 맥도날드가 어느 순간 '아 우리가 너무 가축을 무분별하게 키웠군. 환경에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찾아야겠어.'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의식적으로라도 고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말이죠.

한국에 가서도 이 날은 꼭 지킬 것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으니 메뉴선택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민은 제 주위 친구들, 지인들에게 왜 Meatless Monday 운동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 **Liz(예은)** : 12 월에 산 파블로 와이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은 한 번 실천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12 월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든든하게 먹을 것을 챙기다 보니 고기가 없는 식탁을 꾸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네요. 고기 없는 월요일의 최대 적은 축제! 야채나 생선으로 행사용 식단을 꾸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제 결혼식을 meatless 식단으로 꾸리면 아무도 안 올까요? 금선이는 확실히 올 것 같은데 민수 오빠는 안 온다고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고기 없는 날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으니 배로 좋네요!

● **Jina(금선)** : 아 Meatless Monday.... 12 월은 Meatless Monday 를 지키기에 너무 힘든 달이었고, 그래서 하루 밖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 Pangasinan 에 가 있어서 그 쪽 사람들과 밥 먹느라 지키지 못했고, 그 다음 주는 지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저런 행사가 많아서 고기 없는 식단을 구성하지 못했어요. 이 곳 사람들은 육류를 즐겨 먹을뿐더러 생선보다 고기가 저렴하다 보니, 육류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Meatless 를 실천할 수 있겠지만, 하루를 통째로 Meatless 로 보내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행사가 많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Meatless Monday 인 걸 인식하고 있어도, 여기서 YMCA 총장님 가족과 현지 봉사자들과 같이 살고, 밥도 같이 먹기 때문에, 여기 가족들과의 반찬과 라온아띠의 반찬을 별개로 준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도 Meatless Monday 인 걸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미루어봤을 때, 역시 행사가 많은 1 월에도 Meatless Monday 를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월요일 중 한 끼라도 Meatless 를 지키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 2. 나비효과 나의 효과

● **Manny(민수)** : 이번 달은 특별히 발록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팔팔 나오는 YMCA와는 달리 발록의 사람들은 먹을 물, 씻을 물 모두 길어다 쓴다. 때문에 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실제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에 샤워를 거의 안 했다. 호스트 가족들에게는 추워서 못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샤워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물을 길어 오는 것이 미안해서 하지 않았다. 이 곳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거나 돈을 아끼는 것의 차원이 아니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곳의 현실이다. 어쩌면 넘쳐나는 자원 속에서 환경 보호를 외치며 자원을 절약하는 것도 배부른 자의 여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Sean(순규)** : 쓰레기 산이 있는 '발록'이라는 곳에서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 나비효과와 나의 효과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만들어내는 쓰레기들, 그것을 모으는 사람들, 그것을 팔고 사는 사람들, 그것들이 모이는 곳,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어떤 사람들에게는 쓰레기가 삶의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래 무언가 생산적인 용도로 쓰여야 하는 땅에 모든 것을 밀어내 버리고 쓰레기를 쌓아놓았으니, 이는 비단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곳에서 생활하면 할수록 쓰레기는 꼭 줄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재활용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 한다면 정말 그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절대 쓰레기량을 줄여야만 환경오염이 줄어드는지를 말이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 **Liz(예은)** : 안 쓰는 코드는 빼고, 낮에 화장실 쓸 때는 불을 켜지 않고, 깨끗한 그릇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습관은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의식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제법 있습니다. 특히 린스 적게 쓰기. 20년 간 몸에 배인 습관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리고 이번에 발록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적당량의 음식만 만드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음식 자원을 정해진 만큼만, 혹은 그 이하로 소비한다면 그렇게 해서 아낀 몫의 일부는 제 친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Jina(금선)** : 이번 달에는 Pangasinan 에도 가 있었지만, 연말에는 발록(San Ignacio)에서도 홈스테이를 했었습니다. 비록 3 일 일정의 짧은 홈스테이였지만, 그 곳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 곳의 사람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비효과 나의 효과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기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부엌과 화장실 모두 수도꼭지가 없어서 매 번 물을 길어와서 사용해야 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으며, 가스를 들여놓을 돈이 없어서 장작을 주워다가 밥을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3 일 동안 그 곳에서 지내면서 제가 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렇게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반 강제적으로 자원을 아껴가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 때까지 무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비효과 나의 효과를 실천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마음껏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렇지만 살아갈 수는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비효과 나의 효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 12. 한 달을 마무리 하며...

### ♪ Manny (민수)

어느덧 필리핀 생활 5 개월 차. 이제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 보다는 이 곳의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지난 4 개월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들과 조차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별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된다. 한국에 돌아가면 많이 생각날 것 같고, 또 이 곳을 떠올리면 그리움으로 인해 가슴 한 켠이 먹먹할 것 같다. 올 여름 안으로 다시 한 번 찾아오려고 계획 중이지만 내 뜻대로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한국에 돌아간 이 후에 한 동안은 허전함으로 인해 많이 힘들 것 같다. 생활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보고 싶지만 당장 만날 수 없고 다음을 기약해야만 하기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할 것 같다. 아마도 이 곳에서의 활동을 마무리를 잘 하는 것 보다는, 헤어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 7기 귀국 보고회 때 어떤 단원이 이런 말을 했다. '만약에 돌아와서 후회 될 것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 반면에 하지 않아서 후회 될 것 같다면 꼭 해라'.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될까? 아마도 더 많은 추억을 쌓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이기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소중한 만남 이기에, 남은 한 달 동안은 활동 자체 보다는 관계와 추억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 ♪ Sean (순규)

*나는 2012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지난달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한번쯤은 산 파블로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바람은 너무나도 잘 이루어져서, 20일 이상은 밖에서 잔 것 같다. 중간평가도 있었고, 일정이 미뤄졌던 'Community exposure'도 있었고, 연말에 크리스마스라서 이곳 저곳 많이 돌아다녔고, 못할 것 같았던 발록 홈스테이도 했다. 라온아띠 정규프로그램은 하나도 못했지만 새로운 스케줄로 바쁘게 살았던 한달 이었다. 사실 노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말이다. 솔직히 우리 팀에게도 약간 쉴 시간이 필요했다. (다른 팀 다 여행 갔었는데 저희 팀은 12월 전까지 단 한번도

여행 못 갔습니다. - 필리핀팀의 아우성)

2013년이다. 1월 1일. 요란한 폭죽소리와 자욱한 연기로 시작한 새해는, 개인적으로 라온아띠 활동의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자소서 쓸 때부터 생각해보니 2012년의 반은 라온아띠에 투자한 것 같다. 10000자에 가까운 자소서와 씨름하고, 면접에서 몰매를 맞고 떨어졌음을 확신했을 때에 이미 난 라온아띠로서 활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국내교육 일정, 지역 인턴십, 각종 캠프들 모두가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항상 동경하고 꿈꾸어 왔던 '국제 자원활동가'라는 타이틀을, 비록 아마추어 이지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도 즐거웠고 신났다.

활동한지 벌써 4달이 지났고 지난 2012년, 그리고 그간의 라온아띠 활동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련해 진다. 처음의 열정, 다짐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목표한 바는 잘 이루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곳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리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뻑뻑하게 살아가기 보다는 늘 그랬듯이 흘러가는 대로, 하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다.

산 파블로에서의 생활은 정말 많은 면에서 나를 바꾸어 놓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 것, 작은 현상에도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등 나 스스로는 내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시도하고 또 이해해 보려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활동하다 보니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팀원들간의 관계뿐 만이 아니라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시도,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스스로가 대견하다.

사실 나의 삶의 모토 중 하나는, '지고 살자' 인데 듣고 이해하려는 능력까지 갖춘다면 나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해 주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 ♪ Liz (예은)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한 해가 끝나는 12 월이라서 그런지 마치 활동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 애증이 넘치는 이 곳에서의 삶이 그리워지면 어떻게 하나 문득 겁까지 난다. 지난 12 월을 짧게 평가하자면, 바이올리듬 스위치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바뀌었다. 지난 11 월에 동민 간사님에게 받은 메일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항상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더 노력했다. 항상, 최선을 다하기로. 그게 11 월 중순이었는데, 12 월 중순이 되니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다. 왜 만날 사람 좋은 웃음지으면서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모든 제안에 거절도 못하고 yes 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정말 아는데 왜 다 이해하면서 괜찮다고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에너지이저가 아닌데, 나를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쯤으로 생각했나 보다. 나를 돌보지 않은 결과가 결국에는 남들에게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이미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12 월에는 크리스마스 와 연휴도 낀 김에 많이 쉬어야지 했는데, 그게 또 생각만큼 잘 되질 않았다. 아, 어려운 12 월이여!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이 곳 총장님과의 관계였다. 지난 9 월에서 11 월까지는 다른 팀원이 봐도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총장님을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했다. 그런데 어떤 몇 가지 일들로 총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느끼는 책무의식,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나라도 팀과 총장님의 가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하나는 총장님이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 대신에 팀원들하고 더 가까워져서 좋구나 하는 생각. 총장님과 팀원과의 관계가 하나를 포기해야 다른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내가 참 어지간히도 부족하구나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을 또 그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넘길 수 없는 내가 참 바보 같다. 매사를 너무 꼼꼼이 생각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점. 여기서도 밸런스의 문제가 또 나왔다. 스무 살에는 지금쯤 되면 제법 균형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착! 각!이었음이 분명해졌다.

12 월 말에는 발록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발록의 친구 말을 빌리면, 이곳은 필리핀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100 이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 0 이라고 했을 때 10 정도인 곳이다. 그간 간접적으로 접했던 곳에 내가 들어와서 이곳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신기할 정도다. 발록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산에서 캐낸 쓸만한 쓰레기를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간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스며들었다. 물론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내 의지가 거의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곳이 우연히도 산 파블로 와이에서 거두어들인 커뮤니티였을 뿐이지만, 이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아닌 내 의지가 작용한다. 농담과 진담이 구분이 가지 않고, 만사가 오케이인 사람들, 매우 심플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나와는 참 다르다면 다른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관계의 실타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이래서 아나 간사님이 라온아띠는 첫사랑이라고 하셨나 보다.

## ♪ Jina (금선)

12 월은 지난 3 달과는 조금 달랐다. 산 파블로 YMCA 에서 머문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보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12 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의 크리스마스 방학은 12 월 20 일경에 시작해서 1 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12 월 14 일까지 Pangasinan 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까지 해오던 활동들 (피딩 및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Pangasinan 에서, 그리고 San Ignacio 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 또한 나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Pangasinan 에서는 커뮤니티 조직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고, San Ignacio 에서는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첫 발자국을 땀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San Ignacio 에서의 홈스테이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사실 지금 '특별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처절한 현실이 나한테는 한낱 특별한 경험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것만 같아서. 그냥 정말



'삶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가슴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뭐라고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 특히 나보다 어린 청년들이 그러한 환경 아래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프는데 반찬이 없어서 밥만 들고 서성거리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부엌에 수도꼭지가 없고,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없고,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잠자리가 좁고 등의 불편함을 얘기하는 건 너무 큰 사치였다. 나는 여기 정말 '경험'을 하러 자발적으로 들어온 외부인이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 그냥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이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건지 감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삶의 무게가 다르다는 게 너무 와 닿아서 가슴이 빠근해졌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고 늘 웃으며 살 수 있는 건지. 또 나를 손님이라며, 본인들은 먹을 게 없는데도 나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챙겨주시는데 정말 몸 둘 바를 몰랐었다. 홈스테이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괜히 그 집에 피해를 끼친 건 아닌지 걱정도 됐었고..

아무튼 이런 홈스테이의 경험과 더불어, 지난 4개월 간 라온아띠로 이 곳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배운 게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멍하니 뉘 놓고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도 많았고, 그냥 이 곳에서 사는 과정에서 무언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아쉬운 건, 이제야 겨우 채워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활동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남은 1월 한 달 동안의 일정을 정리하면서, 문득 시작보다 마무리가 훨씬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뮤니티에 스르륵 들어온 것처럼, 나갈 때도 스르륵 아무렇지 않게 나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그래도 일단 남은 한 달은 여기서의 생활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 곳에 너무 폭 빠져서 한국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가끔 듣지만, 그건 한국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 나중에 아쉬움이 남지 않게 1월도 열심히 즐기고 살다가 갈 계획이다. 새로운 2013년을 이 곳에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라온아띠와 함께 마무리한 2012년, 그리고 함께 시작한 2013년 모두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달은 특집호니까요?!*

### 13. 자유지연!!!

#### - 민수의 'Gain Weight Project'



10 월 3 일 시작 된 민수의 'Gain Weight Project'. 어느덧 3 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참 많이 먹었다. 먹고.. 또 먹고.. 다시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자부터 찾았고, 밥은 항상 두 그릇씩 먹었으며, 팀원들이 못 먹고 남긴 음식은 당연히 내 차지였다. 팀원들은 배고플 때 나에게 찾아와서 일용한 양식을 구했다. 왜냐하면 내 옷장은 항상 과자들로 가득했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체중계에 올라갔고, '열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체중 감량이 걱정되어 한국에서 자주 하던 조강도 필리핀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초점이 체중 증가에 맞춰져 있었다. 마치 권투 선수의 체중 감량과도 같은 강도 높은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 하고 싶다. 체중 증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온 지난 3 개월. 과연 민수의 체중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금선이의 보름달 같은 얼굴, 예은이의 건장함, 순규의 토실토실한 엉덩이가 완성이 됐을까? 결과는 2 월 4 일 인천 공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ing soon!!!! ♥♥♥♥♥

- 라온아띠 만화 : 이에은전

편집 : 안순규





여권사진



벽치기?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  
 어디서 예쁜  
 척이야?



교훈 : 진정한 미는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온아띠의 '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표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하튼, 이예은 단원 덕분에 '하루에 한번만 예쁜 척, 멋진 척 하기'라는 규칙이 신설 되었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 제발 그만해요.

훗, 이 정도는 되야 귀여운 거 아님? ㅋ



<마크의 일기>

편 집: 이에은

2012년 12월 29일 토요일 / 날씨:해 떴다가 비도 옴



오늘은 한국인 누나가 와서 친구들 손톱에 물을 들어줬다. 손톱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손 전체가 붉어지는 게 이상해서 나는 하지 않았다. 이 누나는 말이 참 많다. 그리고 동그란 몸을 갖고 있다. 아마 한국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보다. 라온아띠 형, 누나들이 홈스테이를 하는 덕분에 요즘은 우리 집도 반찬이 두 가지지만, 엄마가 다른 아줌마네 가서 야채를 자르거나 빨래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게 별로 없다. 이 형, 누나들이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오늘은 강에 가서 친구랑 목욕도 하고 수영도 했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무릎이 까졌다. 따가운데 뭐 참아야겠지. 지난 번에 아팠던 곳도 그냥 내버려두어서  
 흉이 많이 졌는데, 이번에는 괜찮았으면 좋겠다. 내가 목욕을 하는 동안 동생은 옆에서  
 이를 닦고, 형은 빨래를 했다. 나는 빨래하는 게 참 귀찮다. 형 옷 사이에 내 옷을 하나  
 끼두었는데 잘 빨아두었겠지? 동생이 자꾸 치약을 내 몸에 바껴서 좀 혼내줬다. 오후에는  
 공동 수돗가에 가서 양동이 2개에 물을 길었다. 젓 먹던 힘까지 내서 양동이를 들고 오는데  
 진흙탕에 넘어져서 물을 다 쏟았다. 우악! 짜증나! 아... 곧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난다.  
 학교까지 걸어서 한 시간이나 가야 하는데, 엄마가 자전거라도 사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안 되겠지? 그래도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면 배가 너무 고프고, 끝나고 돌아올 때는 덩다.  
 우산을 까먹고 안 챙기면? 생각하기도 싫다. 좀 있으면 수학시험을 보는데, 나는 수학이  
 자신 있다. 대학교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큰누나는 다니고 있는데,  
 우리 형도 다니고 나도 다닐 수 있을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보내  
 주시겠지. 2012년에는 수학 트로피를 3개 탔는데, 2013년에는 5개가 목표다!

## - Jina (금선) - <한국으로 보내는 편지 - 엄마에게!>

마지막 보고서임을 기념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한 페이지 분량의 자유 코너. 이 기회를 빌어서 전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제일제일 보고 싶고 제일 그리운 우리 엄마한테! 보고서이지만 반말로 쓰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만큼 우린 친하거든요 ^\_^

엄마 안녕?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요 한마디 썼는데도 왜 벌써부터 울컥하는 건지 모르겠당....히잉 사실 이걸 엄마가 볼 지 안 볼 지 난 모르는 상황이긴 해. 엄마한테 라온아띠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팀 지난 활동 보고서 보라고 몇 번 말하긴 했는데, 엄마가 과연 예전 활동 보고서를 봤을지,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당. 그래도 엄마가 이걸 읽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

음... 손편지도 보내긴 했고 카톡이랑 전화로 자주 안부를 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쓰려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 지 모르겠네. 일단 내 선택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설레발 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내가 라온아띠에 지원했다는 것조차 말하지 않았었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필리핀 가서 5개월 있다 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 기분이 어땠을 지.. 심지어 내가 2012년 상반기에 교환학생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바로 또 집을 비운다니... 합격하고 바로 당장 다음주부터 국내훈련 때문에 한 달 집을 비워야 한다고 말했을 때 엄마가 놀라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되게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아무런 예고 없이 또 당분간 떠나있겠다고 대뜸 통보해버리고.. 그래도 그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괜히 발표 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미리 꺼냈다가 일을 그르치기 싫어서 그랬었어. 히히 이해하지, 내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아무튼 그 때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결정을 지지해주서 고마워.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길이 엄마가 원하던 길은 아니라는 걸. 그래도 내가 가고 싶어 하니까, 젊었을 때 모든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며 흔쾌히 허락해 줘서 진짜 감사해. 덕분에 정말 많은 거 보고 듣고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거 보다 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나 진짜 많이 망설였었잖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길 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엄마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상황 판단이 서질 않았었어. 나에게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단 1 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가 우위에 있지만, 난 아직도 어리고 이기적인 건지 이 기회 또한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구. 내가 그냥 집에 남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절대 안 된다며, 엄마는 괜찮다고, 내가 엄마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그게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들 거라며 꼭 가라고 했던 그 순간은 절대 잊지 못 할거야. 엄마는 나보다 어른이니까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며 한국을 떠나버린 내가 가끔은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껴지던지. 그래도 이제 곧 한국 가니까, 한국 가면 어디 안 가고 엄마 옆에 붙어서 콩냥콩냥 알콩달콩 지낼거야! 약속약속!

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2 월 4 일. 내가 네덜란드로 떠났던 게 2 월 1 일. 네덜란드에서 귀국하고 라온아띠 오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일 빼고 결국 같이 시간을 보낸 건 일년 중 고작 한 달뿐이더라고. 올해 2013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같이 보내자!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같이 하러 다니고! 그렇게 엄마랑 같이 하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 그리다... 조금만 기다려, 딸이 곧 갑니다. 지난 1 년 간 외롭게 지냈을 것 같아서, 미안해. 그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더 효도하는 예쁜 딸이 될게. 보고 싶다 많이많이!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곧 만나요! 사 사 사 사랑해♥

## 14. 팀원 혹은 나에게 쓰는 편지

### ♪ Manny (민수)

민수야...

...

...

...

...수고했다

...

...

...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자 ^^

### ♪ Sean (순규)

Dear 나, 그리고 사랑 만땅 팀원들.

순규야,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오글거려서 미치겠구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돌아본다는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2012년은 고생이 많았다. 보람차게 1년을 채우고, 2013년에 올바른 길로 전진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한 것 같아. 특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라온아띠가 되어서 자랑스럽고, 큰 탈없이 잘 지내줘서 고맙다! 사람관계에 힘든 적도 많았고, 활동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현명하게 그것들을 극복

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더욱 더 커진 것 같아. 단순히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모습에서 가끔은 기특함을 느낀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 끝까지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2013년은 너의 해로 만들자. 계획한 것 잘 이루고, 라온아띠 관련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좌절하지 말고 긍정으로 살자.

그리고 팀원들. 고생이 많아요.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맨날 얼굴 마주치며 반 년 이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가면 갈수록 서로 관계가 돈독해 지는 모습을 보면 전 항상 기쁩니다. 특히 여자 팀원들과 민수형과의 훈훈한 삼자대면을 보고 있자면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정리하는 마당에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요즘은 사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활동하면서 이타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동업해 볼래요? 는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 항상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가서 더 친하게 지내요. 자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서로 소개팅도 시켜주고 ㅋㅋㅋ. 이제 우리도 다 각자의 짝을 찾아 정착할 나이에요... 무적의 솔로부대는 개나 쥐버려!! 다들 2013년에는 이상형 만나서 알콩달콩하게 사랑하길 바라요. 라온아띠 경쟁률도 뚫었는데 못할게 뭐예요!

남은 한달 잘 마무리하기 바라요. 질질 짜고 떠나기 싫다고 떼 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덤덤하게 우리의 흔적은 고이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여기 남은 사람들을 위해, 또 다음에 올 9기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각자 올바른 방법으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해요 팀원들. 근데 우리 공항가서 뭐 먹죠? 빨리 정해요. 빨리!

**2013년 1월 5일**

- 이번 달을 포함해 팀장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여러분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순규단원 -

♪ Liz (예은)

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 이렇게 또 지면으로 편지를 쓰려니 부끄럽네요. 초반에는 맞는 구석이 하나 없는 팀원들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분이 저랑 같은 팀이라 참 감사한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참 마잉아이하고 엄청 질문이 많고, 탄지도 잘 걸고, 성격도 급합니다. 저랑 똑 같은 팀원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우리 팀은 참(!) 시끄러웠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급한 성격을 가진 탓에 일이 일사천리로 팍팍팍 진행될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 여기 일만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팀에 저는 하나로 족한 것 같네요.

먼저, 민수오빠. 오빠랑 지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밀어 부치는 것과 기다려 주는 것. 저는 한 때, 기다려주는 것을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서도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규 오빠, 이런 말 하면 또 달려오겠지만... 오빠는 참 순박하고(그래서 '순'규인가요?ㅋㅋㅋ) 착해요. 그리고 잘 참아요. 그리고 진짜 오빠 같은 구석이 있어요. 비록 제가 가끔 반말은 하지만, 당신은 제 오빠입니다. 초반에는 참 답답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그런데 코는 좀 그만 만져요. 진짜 이 코만남아. 메롱 ㅋㅋㅋ

그리고 금선이는 정말정말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둘째가면 서럽다 할 정도로 참을성이 뛰어납니다. 잘 듣고, 맞장구 잘 쳐주고. 또, 금선이의 입에서 '싫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름만큼이나(?) 무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합니다. 아! 손발이 예뻐니다. 가위질도 참 잘합니다. ㅋㅋㅋ

우리 팀원들은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늘이 보낸 천사들인가 봅니다. 아,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그만 해야겠네요. 허허허 그럼 안녕!

## ♪ Jina (금선)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막내 금선이에요 ^\_^ 내가 내 입으로 막내라고 하려니 참 이상하네요. 'I'm bunso of this team' 이라고 자기 소개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한국어로 막내라고 하려니까 괜히 민망하고 오늘거리는 지... 아무튼 전 요 코너에서 팀원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나한테 쓰는 편지는 나한테 몰래 쓸래요, 비밀로. 궁금해도 안 보여줄 거예요, 호호호.

히유 그나저나 벌써 마지막 보고서를 쓴다니... 시간이 너무 야속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7월 16 일에 처음 만나서 같이 걷기 시작해서 국내훈련 받던 게 엇그제만 같은데, 이제 활동을 슬슬 마무리 해야만 하는 시간이 왔네요. 아직 몇 주 남긴 했지만 마무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벌써부터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반년의 시간을 함께 해오면서 같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먼저 몇 달 동안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서로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 팀은 그래도 크게 광광 터지는 마찰 없이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저의 단점이 보여도, 절 나무라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해 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팀은 참 동글동글 한 것 같아요, 헤헤헹.

음 먼저 민수오빠! 우리 친해지는 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친하니까!! 일단 오빠가 우리의 왕오빠라 든든했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오빠 덕분에, 뭔가 일을 선불리 해서 그르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여기 와서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특히 12 월쯤부터! 그런 오빠를 보고 있으면 저도 괜히 엄마미소 띄게 되더라고요. 우리 팀원들이 모두 여기서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한 기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영어도 많이 늘고, 사람들이랑 친화력도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서 오빠가 여기에 온 게 우리 팀뿐만 아니라 오빠 개인한테도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무튼 고마워요 오빠, 제가 가끔 드립쳐도 받아줘서 ㅋㅋㅋ 그런데 살은 좀 찌야 할 것 같아요. Gaining weight 프로젝트는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가끔 간식 사다가 헌납하겠습니다. 오빠의 1 월 목표는 다시 살 찌우는 거예요!! 빠샤

그리고 그 다음은 순규오빠! 이건 나이 순으로 쓰는 거니까 예은언니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먼저 오빠한테도 소소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팀을 위해서 오빠가 이 때까지 많이 노력한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미안함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오빠 덕분에 우리 팀이 더 둥글둥글하게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움 무엇보다도 오빠는 조화가 잘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추진력과 여유가 반반 섞인..? 창의력도 있고, 일에 착수해야 할 땐 머뭇거리지 않고 쪽쪽 하면서도, 혼자 깊게 생각도 많이 하고 오빠가 스스로 '한량' 이라고 자칭하는 것처럼 여유도 있고. 오빠는 노력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부럽부럽. 저도 언젠간 추진력+창의력 대장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빠도 4 달 동안(이제 곧 5 달이지만) 못난이랑 살아주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마지막은 예은언니! 언니가 요 편지에서는 막내예요 히힃. 뭐 언니가 추진력 좋고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나아가는 건 이미 많이 칭찬했으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당. 일단 언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할 지, 그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언니가 먼저 알아채고 그걸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발록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는 게 너무 부럽고, 제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전 생각에서 그치는 일이 태반인데 ㅜㅜ 아 맞다, 그리고 전 여기에 언니랑 같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언니가 발록에서 하루 더 홈스테이 한다고 Y 를 비웠을 때, 혼자 불 끄고 방문 잠그고 자려고 하니깐 갑자기 너무 외로운거예요...!잉잉 그걸 이제야 느끼다니. 고마워요, 같이 있어줘서! 그리고 제가 칠칠맞지 못하게 창문 밖으로 뭐 떨어뜨리면 주워다 주는 등 맨날 엄마처럼 챙겨줘서 감사해요 ㅋㅋㅋ 뿌잉뿌잉

우잉 쓰다 보니까 또 편지가 길어졌네요. 뭐든 길게 쓰는 건 쉬운데 짧게 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핵심만 쓴다고 쓴건데도..... 큼 아무튼 우리 모두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얼굴 안 보면 그만이었지만,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에게 맞춰서 자신을 조율해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요..... 어쨌든, 4 달 동안 수고하셨고 남은 1 달도 예쁘게 마무리해요 우리. 작별 인사는 아직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_^ 그리고 여기서의 시간이 끝난다고 우리도 끝나는 건 아니니까! 헤헝 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이거 보고 기특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히히히 그럼 빠잉!!